홈런에 웃고 홈런에 울고

KIA, SSG에 7-9 역전패

나성범·황대인 홈런으로 역전

한유섬·크론에 홈런 맞고 무릎

'호랑이 군단'이 홈런에 웃고 홈런에 울었다.

KIA 타이거즈가 2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시즌 6차전에서 7-9패를 기록했다. 홈런으로 승부를 뒤집었던 KIA가 홈런에 승리를 내줬다.

선발 한승혁이 3회를 넘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일찍 불펜진이 가동됐다.

1회 1사에서 스트레이트 볼넷을 허용한 한승혁이 최정에게 좌중간 안타를 내줬다. 폭투까지 이어지면서 1사 2·3루, 한유섬의 중전안타로 2점을 내줬다.

KIA 타선도 1회부터 움직였다.

선두타자 류지혁이 좌측 2루타로 출루한 뒤 김선빈이 볼넷을 골라냈다. 이어 더블 스틸로 무사 2·3루를 만든 KIA가 나성범의 중전안타로 2-2로 이내 균형을 맞췄다.

하지만 한승혁의 2회도 깔끔하지 못했다.

오태곤의 유격수 내야안타로 2회를 시작한 한승혁이 김민식에게 연속안타를 맞았다. 김성현의 희생번트로 1사 2·3루, 추신수의 희생플라이와 최지훈의 우전안타로 다시 2점을 내줬다.

한승혁은 3회에도 1사에서 크론에게 2루타를 허용하는 등 2.2이닝 6피안타 1볼넷 4실점을 기록하고 일찍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선발이 일찍 물러났지만 KIA가 불펜의 해결사 윤중현을 앞세워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3회 2사 2루에서 나온 윤중현이 오태곤에게 안타는 맞았지만 김민식을 우익수 플라이로 잡으면서 실점은 기록하지 않았다.

이어 3회말 나성범이 SSG 선발 오원석의 슬라이더를 받아 좌중간 담장을 넘기면서 3-4로 추격을 했다.

윤중현이 4·5회를 무실점으로 책임지자 5회말 황대인이 '한 방'으로 힘을 실어줬다.

2사 1루에서 타석에 선 황대인이 오원석의 슬라이더를 중앙 담장 밖으로 보내면서 5-4로 경기를 뒤집었다.

리드는 가져왔지만, 승리는 챙기지 못했다.

홈런에 웃었던 KIA가 7회초 홈런에 울었다.

6회를 깔끔하게 처리했던 좌완 이준영이 선두타자 최지훈을 볼넷으로 내보내면서 마운드가 장현식으로 교체됐다.

장현식이 첫 상대 최정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했지만 한유섬에게 2구째 슬라이더를 공략당하면서 역전 투런포를 허용했다. 이어 크론에게 던진 145㎞ 직구가 중앙으로 빠르게 날아가면서 백투백 홈런이 기록됐고, 점수는 5-7로 벌어졌다.

8회에는 실책이 KIA 승리를 막았다.

홍상삼이 볼넷으로 선두타자 김민식을 내보냈고, 김성현의 번트 타구를 잡은 뒤 1루에 악송구 하면서 무사 2·3루에 몰렸다. 이어 추신수와 최지훈에게 연속 안타를 맞으면서 점수가 5-9까지 벌어졌다.

KIA가 끝까지 가는 승부는 펼쳤다.

소크라테스의 볼넷이 나온 8회말 대타 이우성의 유격수 땅볼, 이창진의 우익수 플라이가 나왔지만 박동원이 내야안타로 분위기를 살렸다.

그리고 박찬호의 땅볼 때 유격수가 2루로 던진 공이 빠지면서 KIA가 1점을 보탰다.

9회말에는 김선빈이 선두타자로 나와 우중간을 가르면서 2루까지 향했다. 나성범이 2루 땅볼로 물러났지만 황대인이 중전 적시타를 날리면서 7-9로 압박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났고, 이우성의 타구는 1루수에 막히면서 2점 차 패배로 경기가 마무리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9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2 KBO리그 SSG 랜더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KIA 나성범이 3회말에 좌월 솔로홈런을 때리고 있다. /연합뉴스

레알, UEFA 챔스 우승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29일(한국시간) 프랑스 생드니의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리버풀과 2021-2022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결승전에서 승리한 뒤 우승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UEFA 챔스 결승전 쿠르투아 골키퍼 선방·비니시우스 결승골

리버풀 1-0 꺾고 '빅이어' 차지 … 챔피언스리그 14번째 우승

스페인 프로축구의 '강호' 레알 마드리드가 4년 만에 유럽 축구 정상을 탈환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29일(한국시간) 프랑스 생드니의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리버풀과 2021-2022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결승전에서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이겼다.

올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라리가) 정상에 오른 레알 마드리드는 2017-2018시즌 이후 4년 만에 유럽 축구까지 제패했다.

UCL 역대 최다 우승팀인 레알 마드리드는 통산 14번째로 우승컵 '빅이어'를 들어 올리며 이 기록을 이어갔다.

반면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과 카라바오컵(리그컵)에 이어 트레블(3관왕)을 노리던 리버풀은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다.

두 팀이 UCL 결승에서 맞붙은 건 올해가 세 번째다.

1980-1981시즌에는 리버풀이 1-0으로 이겼고, 2017-2018시즌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리버풀을 3-1로 제압하고 우승한 바 있다.

4년 만의 결승전 '리턴 매치'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또 한 번 미소를 지으며 우승 상금으로만 2천만 유로(약 269억 원)를 챙겼다.

카를로 안첼로티 레알 마드리드 감독은 UCL에서 4번째 우승을 경험하며 최다 우승 감독 단독 1위가 됐다.

그는 앞서 AC 밀란(2003·2007년), 레알 마드리드(2014년)에서 세 차례 UCL 우승을 이끈 바 있다.

전반 리버풀이 공세를 높였다. 리버풀은 이날 슈팅 개수에서 23(유효 슛 9)-3(유효 슛 1)으로 앞섰다.

레알 마드리드는 전반 43분 혼전 상황을 거쳐 카림 벤제마의 왼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득점에는 실패해 0-0으로 전반을 마쳤다.

아쉽게 골이 무산된 레알 마드리드는 결국 후반 선제골을 터트렸다.

후반 14분 페데리코 발베르데가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올린 낮은 크로스를 반대쪽에서 쇄도한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오른발로 툭 차 넣었다.

리버풀은 후반 19분과 24분 살라흐의 슛이 쿠르투아의 '선방 쇼'에 막혀 애를 먹었다.

철옹성 같은 수비를 선보인 쿠르투아는 결승전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골키퍼가 MVP에 오른 건 2008년 에드빈 판데르 사르 이후 14년 만이다.

그는 이날 9차례 선방을 펼쳤는데 통계 전문 옵타에 따르면 이는 2003-2004시즌 이후 역대 UCL 한 경기 최다 선방 기록이다.

쿠르투아는 이번 시즌 UCL 13경기에서 61번의 선방으로 이 부문 1위에 올랐고, 5차례 '클린 시트'(무실점 경기)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광주FC, K리그2 11경기 연속 무패

부산 원정서 3-0 승리

광주FC의 '만세 삼창'이 다시 경기장에 울려 퍼졌다.

광주가 지난 28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부산 아이파크와 K리그2 2022 1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3-0 승리를 거뒀다.

앞서 17라운드 경남 원정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했던 광주는 다시 승리 행진을 재개하고, 서포터즈 앞에서 승리의 '만세 삼창'을 외쳤다.

이날 승리로 리그 11경기 연속 무패(9승 2무)를 기록한 광주는 승점 38로 선두 질주를 이어갔다.

대전하나시티즌이 서울이랜드전 1-0 승리와 함께 휴식 라운드를 보낸 부천FC를 3위로 밀어내고 2위로 올라섰다. 광주와의 승점은 6점 차다.

전반 9분 문전 경합 과정에서 흐른 공을 잡은 정호연이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날리면서 공세의 시작을 알렸다.

2분 뒤 광주의 선제골이 만들어졌다.

이으뜸이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두현석이 왼발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부산의 골망을 흔들었다.

광주가 추가골을 위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전반 22분 광주 벤치에서 아쉬운 탄성이 나왔다.

헤이스가 우측에서 올라온 공을 가슴으로 트래핑한 뒤 오른발 슈팅을 날렸지만 골대를 맞았다.

25분에는 부상에서 복귀한 이건희의 슈팅이 살짝 골대를 벗어나면서 땅을 쳤다.

전반 28분 부산 안병준의 슈팅이 골대를 벗어나면서 한숨 돌린 광주가 전반 33분 기다렸던 추가골을 만들었다.

왼쪽에서 이으뜸이 중앙으로 밀어준 공이 이건희를 지나 마이키 앞으로 향했다. 마이키가 오른발로 가볍게 공을 밀어 넣으면서 시즌 2호골을 장식했다.

후반에도 광주의 공격은 뜨거웠다.

후반 시작과 함께 이순민이 중거리 슈팅을 선보였지만, 상대 골키퍼 구상민을 뚫지는 못했다. 후반 7분에는 헤이스의 슈팅이 구상민의 선방에 막혔다.

후반 11분에는 광주 골키퍼 김경민이 안병준과 이상헌의 슈팅을 연달아 막으면서 부산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그리고 후반 중반 몇 차례 상대를 흔들었던 허율이 마침내 골 맛을 봤다.

후반 44분 이상기가 우측에서 낮게 크로스한 공을 허율이 다리를 뻗어 부산 골대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팀의 11경기 연속 무패를 완성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양출신 양지호 132전 133기

KPGA KB 리브챔피언십 우승

양지호(33)가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데뷔 14년 만에 첫 우승 감격을 누렸다.

광양제철고를 나온 양지호는 29일 경기도 이천시 블랙스톤 이천 골프클럽 북서코스(파72·7260야드)에서 열린 KPGA 코리안투어 KB금융 리브챔피언십(총상금 7억원)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5개, 보기 1개를 묶어 6언더파 66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7언더파 281타의 성적을 낸 양지호는 2위 박성국(34)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 상금 1억40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2008년 데뷔 이후 종전 최고 성적이 이달 초 GS칼텍스 매경오픈 4위였던 양지호는 데뷔 14년 만에 처음 정상에 올랐다. 대회 수로 따지면 133번째 대회에서 거둔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선두에 2타 뒤진 공동 4위였던 양지호는 5번 홀(파5) 약 65야드 거리에서 시도한 샷으로 이글을 잡아냈다. 이글 앞뒤로 버디까지 묶어 4~6번 홀에서 4타를 줄인 양지호는 17번 홀(파4)까지 박성국과 7언더파 공동 선두를 달렸다.

그러나 뒤 조에서 경기한 박성국이 17번 홀 티샷이 오른쪽으로 크게 치우치며 네 번째 샷으로 겨우 공을 그린에 올렸다. 약 3m 보기 퍼트도 넣지 못한 박성국이 이 홀에서 2타를 잃으면서 순식간에 양지호는 2타 차 단독 선두가 됐다.

양지호가 29일 KB금융 리브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지막 18번 홀에서 3타 만에 공을 그린 올리는 안전한 전략을 택한 양지호는 약 5.5m 버디 퍼트 기회를 살리지 못했지만 2타 차 리드를 유지한 가운데 여유 있게 홀아웃했다.

마지막 홀에서 이글을 해야 연장전에 갈 수 있었던 박성국은 두 번째 샷이 그린 주위 벙커로 향했고, 벙커에서 이글을 노리고 친 샷이 그린 위에 올라가는 데 그치면서 양지호의 우승이 확정됐다.

/연합뉴스